

육우산업, 호황일 때 준비하자!

- 고평행진 육우가격, 예고없는 추락에 대비할 때는 지금뿐!

6월 9일은 육우데이. 안타깝게도 올해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으로 연중 대대적으로 육우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육우농가들의 자금심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도 2015년 육우산업은 오랜 굳은 날씨 끝에 갠 화창함으로 가득해 보이기만 하다.

참으로 모질게 이어진 경영난을 겪고 나서 맞는 가격호황 속에 한 시름 놓을 수 있게 됐지만, 과연 이 순간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지 하는 불안감 또한 상존하는 현실이다. 괜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육우인들이 걱정 속에 보내고 있다.

맛 좋고 신선하고 저렴한 육우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협회를 비롯, 육우농가들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여전히 육우를 모르는 일반소비자들이나, 혹은 알더라도 육우를 저평가하는 인식 속에 육우고기를 애써 외면하는 현상때문에 육우고기의 대중적 소비는 요원해보이기만 하다.

철용성 같기만 한 한우고기에 대한 절대적 소비자 신뢰와 가격의 이점을 살려 시장의 점유 확대에 나선 수입쇠고기의 대량수입 틈바구니 속에 진정 우리 육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이에 월간 낙농육우는 본 기획특집을 통해 육우산업을 걱정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보았다.

군납, 학교 급식 등 납품수요 꾸준한 가운데 공급량 부족으로 상승세 _ 김육

육우산업, 다가올 혼란의 시기에 대비하자 _ 박종수

육우군납의 지속,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조 필요 _ 박봉식

육우고기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_ 이선호

현장취재 인천만수북초등학교, 육우고기 단체급식 현장 _ 교육홍보부

육우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과제 _ 김민경

인물취재 가격상승은 '일장춘몽' 미래 위해 '유비무환' 해야 _ 유진영 육우분과위원장